

“폭염으로부터 건설노동자 보호”

최찬욱 도의원, “직접적 사인보다 대부분 2차 피해로 이어져 위험성 체감 못해…특별점검·시정조치·지원책 추진해야”

보이지 않는 재난으로 불리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 10)이 종일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찬욱 의원은 “지난 7월 9일 전북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단 4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의 전방위적 폭염재난대응이 시급한 상태”라며 “특히 생계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피야벌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도에서 특별점검 및 시정조치,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무려 2,673건(도 자체발주 139개소, 시·군 발주 2,534개소)에 이르며, 여기에 수천 건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포함하면, 도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폭염은 직접적 사인보다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업재해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 그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폭염으로 현기증이 나면 골바로 낙상사고나 미끄러짐사고로 이어지고, 또한 더위를 먹게 되면 심혈관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도 판단력을 흐리게

해 또 다른 2차 사고를 당하기 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덥다고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경미한 부상이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염은 결코 소홀히 대응해서



재난의 종류에 폭염을 포함시킨 바 있다. 최 의원은 “도내 곳곳의 공공건설

는 안 되는 무서운 자연재난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극심한 폭염을 겪은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자연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 민간건설 현장 등도 시·군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면서 “무더위 시간 공사중지 등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폭염안전수칙 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 및 시정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열악한 건설현장에 임시 그늘막, 얼음 생수 등을 긴급 제공함으로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폭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전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국힘 입당원서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해 대외협력위원장의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73년의 한 풀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

국힘 호남동행 의원들,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이 여순사건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달 30일 여수의 여순사건 위령비와 순천의 여순사건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일정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국민의힘에 여순사건 유족회 측에서 참배를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순사건 유족회 요청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

한 행보를 통해 많은 역할을 했고 이에, 여순사건 유족회 측이 국민의힘의 노력들에 감사하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초청을 해주신 유족회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7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통탄의 세월을 보내오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호남동행 활동을 통해 유족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윤석열 국힘 입당, 정치적 파산 선언”

민주 “검찰 정치적 중립 낫솔 마시듯… 윤 수사 재검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용단폭격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운 오늘 무엇이 급해 이렇게 입당을 서둘렀는지 의아하다”며 “오늘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정치검찰의 커밍아웃’이자 ‘정치적 파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장으로 있는 동안 했던 정치적 수사 기사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바친 제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행보라며 ‘마지막 퍼즐 잘 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

립을 낫솔처럼 순식간에 마셔버리고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며 “정치인 윤석열이 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릴 것이다. 아울러 완전한 검찰개혁의 시간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앞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 의식 혐오감을 봤을 때 검찰 총장 감사원장 제의에는 왜 응했는지 의아하다. 그저 출세주의자들께 불쾌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잘 됐다.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윤석열, 최재형 경쟁력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단언했다. /뉴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활동 유공자들에게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했다.

활발한 지역사회 조성 기여 인정

도의회, 서신동 주민자치위 등 유공자 표창 수여 ‘추천 위원’ 김이재 도의원 “지역발전 함께 노력”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지난 달 30일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활동 유공자 11명에 대해 전북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6명(송은경, 안인숙, 유지희, 이광우, 이광희, 최창열)과 서신동 마을계획추진단 4명(김나리, 김정호, 이선희, 진희경)은 활발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원광대학교 소속 변신규 지도자는 전북 체육발전과 불링 위상에 공헌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서신동 마을계획 추진단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분석해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주민 모임으로, 지난 2020년 서신동 마을계획을 수립해 현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서신동 주민커뮤니티 ‘서로가 조성 서신동 풀레길 조성, 서신동 테마별 공원 13개소 조성, 착한소시 챌린지, 방역물품 기부 등 활발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번 표창의 추천 위원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애쓰는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민주주의 4.0 토론회… “기본소득, 당 정신 훼손” 비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4.0 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민주주의4.0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9일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비공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의원은 “4기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책 방향을 계승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고 사회 복지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

지의 발제를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의 중간목표 월 50만 원이라도 연간 300조가 필요하고, 최저생계비 절반 정도인 8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인데 이 경우 소요 예산이 500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전망에서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더욱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체제를 대체하여 기본소득을 줄 수 없고, 기본소득을 주려면 현 시스템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뉴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